

불교교리 경시대회 확대 실시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8월 28일 전국서, 7월 4~16일 접수

전국 청소년 불자들의 불교교리 수준을 점검하는 경시대회가 열린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6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이하 경시대회) 요강을 발표하고 대회 운영위원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운영위원장으로는 성호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자광 스님(군중특별교구장), 도후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심산 스님(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동국대 김희옥 총장이 위촉됐으며 운영위원은 범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상인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를 비롯해 오택원(동대부고), 김용선(동대부여고) 등 11명의 불교종립학교 교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출제심사위원은 법인 스님, 동국대 박경준 교수가 맡는다.

이번 경시대회는 초·중·고등

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고등부는 8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속초, 경주, 전주, 진해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되며, 초등부는 서울 동국대학교 체육관에서 골든벨 형식의 퀴즈대회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진행한 군장병을 위한 경시대회는 전국 군법당으로 확대 실시된다.

중·고등부의 출제범위는 기본교재 <청소년불교입문> <부처님의 생애>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부문에 불교교리·역사·문화·신행·생활 등에서 고루 출제할 방침이다. 초등부는 <어린이 법요집> <우리들의 부처님> <야호! 법회 가는 날이다> <조계종출판사 권>과 동련 정기간행물 <연꽃>에서 출제한다. 군장병들은 <불교입문>에서 출제한다.

시험유형은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구성되며 고등부는 45문항, 중

등부는 40문항, 군장병은 40문항이 출제된다. 초등부는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시대회의 출제경향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자정교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서 문화·수행결사를 접목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상은 개인부문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초종교 각 1명씩 100·200·300만원), 조계종 총무원장상(군장병 1명 50만원) △최우수상인 동국대 총장상(초종교 각각 2명씩 50·80·100만원), 조계종 포교원장상(군장병 2명 30만원) △우수상인 동국대 정각원장상(초종교 각 3명씩 30·50·80만원), 조계종 특별교구장상(군장병 3명 20만원) △장려상인 동국대 불교대학장상(초종교 각 10명씩 20·30·50만원), 군중특별교구장상(군장병 10명 10만원) △인상인 은정불교문화원 이사장상(참가자 상위10%)과 군중특별교구장상(군장병 참가자 상위10%)에게

는 기념품이 증정된다.

단체부문 대상인 총무원장상(1개 단체)은 100만원, 최우수상인 동국대 이사장상과 조계종 포교원장상(2개 단체)은 각 80만원, 우수상인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상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6개 단체)은 각각 장학금 50만원이 전달된다.

또 참가자 가운데 자원봉사, 문화재지킴이 등 신행활동에 모범이 되어 온 학생 5명을 선발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과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우수 성적을 거둔 고3 수험생이 2012학년도 동국대, 금강대, 위덕대 등 불교종립 대학에 응시할 경우 반영자료로 활용된다.

접수방법은 7월 4~16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eunjung.or.kr)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대회결과는 9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신흥사와 월정사의 결승전 모습.

신흥사 3년 연속 종합 1위

제3회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제전 성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6월 11일 충북 보은공설운동장 및 보은중학교에서 '제3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제전'을 개최했다. 올해는 조계종 9개 교구본사에서 6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지역포교 역량 결집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3년 연속 축구제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 2위는 김천 직지사에게 돌아갔으며 종합 3위는 보은 범주와 양산 통도사가 공동 수상했다.

종합 1위에는 300만원, 종합 2위에는 200만원, 종합 3위에는 150만원의 포교활성화지원금이 수여됐다.

이은정 기자

"3·7 기도 통해 한마음으로"

조계종,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나서

"3·7기도를 통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으로 모은다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유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선정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을 중심으로 불교계는 21일 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은 6월 16일 태릉선수촌 오리엔트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유치기원 대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 지사, 이기흥 체육인불자연합회 회장 등 정계, 종교계, 체육계, 직할교구 신도회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문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봉행사에서 "자성과 쇄신을 통해 국민과 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동계 스포츠 종목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원법회에 앞서 같은 날 선수촌법당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3·7일 기도 임재식이 봉행됐다. 전국 교구본·말사에서는 7월 6일까지 사시예불시 축원문을 낭독으로 유치를 기원하게 된다.

이은정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마음 속 상처까지 치유해드립니다"

약사여래불의 마음을 담은 '연우와 함께' 의료봉사단



"연세가 있어도 모든 일에 솔선 수범이고, 겸손하고, 남을 위해 베풀 줄 아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 연우야' (단장 황재운) 봉사자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자 안명자 재무부장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안 재무부장은 올해 47세로 봉사단에서도 가장 젊은 '막내'다. 가장 나이가 많은 봉사자와는 2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다들 이해심이 넓어 세대차이도 느끼지 못하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

'반갑다 연우야'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운영하는 '연우'의 의료봉사단이다. 2006년 2월 결성, 동국대 일산병원, 서울인치과, 연우치과 및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마하의료회, 한의사 불자연합회 의료진과 연계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다.

6월 12일에는 군포 경찰서와 함께 군포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실시했다. 경찰서와 연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 봉사를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을 못 간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소외된 이웃들의 의료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의료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황재운 단장은 봉사단 결성 전부터 강남 봉은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던 중 '반갑다 연우야' 창립에 함께하게 됐고, 지금 활동 중인 각 분야별 팀장들도 모두 황 단장과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황 단장이 '반갑다 연우야' 참여를 권하자 이들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던 황 단장의 깊은 불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갑다 연우야'는 봉사활동 중에는 가급적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다. 경민속 치과치료팀은 "혹시라도 종교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말 한마디에 상처 받는 사람이 없을까 항상 세심한 주

의를 기울입니다"라고 말했다.

의료진과 연계해 활동하는 특성상 봉사는 항상 주말에 이뤄진다. '반갑다 연우야' 봉사자들은 대부분 주부들인데, 모처럼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최현숙 한방진료 팀장은 "하지만 가족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렵죠. 봉사가 있는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구들이 하루 종일 먹을 밥과 반찬을 챙겨 놓고도 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집을 빠져나옵니다"라고 말했다.

봉사자들 중에서는 봉사활동의 보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김점실 이주민진료팀장은 "젊어서부터 봉사활동의 보람을 느껴봐야 나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 합니다"라고 말했다.

'반갑다 연우야'가 수년째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들은 또 다양한 봉사활동의 현장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황재운 단장은 "올해로 6년째인데, 후원자들을 더 많이 모집해서 폭넓은 의료봉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올 가을에 걷기 행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불교계 의료 봉사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

공불련, 제1차 합동 수계법회 봉행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이하 공불련)가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에서 6월 11~12일 제1차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서는 충청북도청불자회 이장근 회장의 '직지와 인세문화', 경상남도청 불자회에서 '2011 대장경 1000년 세계문화축전'을 주

제로 대화의 시간, 108배 명상 포행, 암자순례, 수계법회 등이 진행됐다.

공불련 하복동 회장은 "공무원 불자들은 계를 받아 불퇴전의 자세로 정진하고 심신을 모아 국민의 도반이자 손과 발이 돼 감동을 전하자"고 당부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축하에서 "소통의 행정"은 이 시대 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행이다. 이 법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공직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내 알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예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